

살아생전에 내 의식 속에서 흠쩍 벗어나야

29면에서 계속

고 다니는 나 자신 속에서 나를 건져야 됩니다. 그러니 이 마음도리를 아셔야 하겠지요?

허전한 마음 채워지지 않아요

문) 다니던 직장을 퇴임하고 나니 이제야 집 가까운 절에 인연이 되어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니 육신은 아파서 시들어 가고 사후의 일도 좀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관세음보살을 염하고 있습니다만 허전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요?

답) 오늘날의 우리 불교가 기복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그 모든 일체 만법의 맛을 모르고, 먹을 줄 모르고 즐 줄도 모르고 이거는 막막하기가 한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가 아파도 어떻게 처치해야만 낫는지 그것도 모르고 누가 그러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만 가는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죽는다 산다 이것이, 사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들도 여간 참 문제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후도 바로 지금이 있어야 사후가 있는 거지 지금 없는데 사후가 있겠습니까?

문) 구멍이 매미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근본 축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자기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립니다. 그러면 대의적으로 봤을 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매미가 될 수 있죠. 자기 마음의 차원이 조금, 나는 왜 기어다니기만 할까? 왜 저렇게 낡지 못할까? 할 때 날개 될 수 있는 진화력이 생긴단 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구멍이 매미가 된 것도 모르고 매미가 구멍이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걸 어디로부터 어떻게 해야 치러가 되는지 그것조차도 여러분이 모른다 말입니다.

그러니 인생이 늙어 가면서 얼마나 허무합니까? 벌써 이 세상에 생겨났다 하면 뚜벅뚜벅 죽어 가는 형편이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이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헛바퀴처럼 말입니다. 돌아가면서 자식 기르느라고 헛바퀴, 목은 빛 같으라, 이걸 여념이 없이 그냥 돌고 돌고 또 돌고 돌다가 머리는 허렇게 세어지고 인제 수 죽은 못 쓰게 되니 얼마나 허무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허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면 이 마음도리를 꼭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늙으나 젊으나 이 몸이 있을 때 그 도리를 알아야 진화

력이 생겨서 바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끄달리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업을 지니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날 기복으로 그저 밥이나 해 놓고 떡이나 해 놓으면 부처가 잘 먹는 줄 알지만 여러분의 부처가 다 먹어치우고 가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처가 더 가져 오나라, 덜 가져 오나라, 많이 가져 오나라, 맛있는 거 가져 오나라, 다 내가 먹겠다 이렇습니까? 그러니 어느 종교나 기복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 말들은 좋지만,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죠" 이런 말들이야 뭐, 누군 못합니까? 실천이 문제지. 그 근본의 실천이 문제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때 놓을 때 공짜로 때 놓지 말라 이겁니다. 말을 하면 그 뜻과 말과 행이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따로따로 있지만 한번 만나면 둘이 아닙니다. 한마음입니다. 그대로 그러나 헤어졌

름이 제각각이죠. 이름은 각각이나 그 이름이 해 줘나? 이름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아무개야!" 부를 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능력에는 이름, 이런 것이 다 필요 없죠. 그러나 필요 없지 않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진리다 이겁니다. 그거 하나도 버릴 게 없다. 우리가 이름을 모르면 불려서 일을 시킬 수가 없고 이름을 불러서 서로 웃을 수가 없고 얘기할 수가 없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그 능력을 길러서 모든 걸 안다면 이 몸도 그냥 그대로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이 된다고 겁나. 그러나 밖으로 끄달리지 마시고 열심히 정진하시어 안으로 충만해주시기 바랍니다.

머느리가 교회에 다니는데...

문) 제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머느리가 교회를 다녀요. 같이 절에 다니던 중했는데 머느리는 주님은 자기 말고 누구도 믿지 말랬다

마음 편안하게 해 주세요. "야야, 주처는 네 마음 깊은 속에 있다더라. 나도 내 주처를 내가 믿고 있다, 내 가슴속에, 내 마음속의 주처를 믿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 말아라." 이렇게요.

그리고 기독교를 다니든지 불교를 다니든지 이 마음 통신처가 제 1위지 기복으로 하는 거, 이 불교에도 기복으로 믿는다면 그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부처님께서는 "네 자신을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마구니의 소꿉과 같으니라." 또 예수가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마구니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했다면, 난 예수가 자기만 믿고 남을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생각하죠. 왜 줄 아세요? "각자 나를 믿어야지, 타인을 믿는다면 도깨비와 같고 마구니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될 텐데, 자기 같이만 알고선 믿곤 그냥 남은 생각지도 않고, "나를 믿지 않고 벗어나서 타인을 믿는다면 도깨비장난과 같고 마구니와 같으니라." 했단 말입니다. 그랬으니 실수했죠.

좀 부정적인 편이예요. 좀더 밝게 살고 싶은데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내가 그 마음에 달렸다는 얘기 한번 할까요? 두 친구가 장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일주일 일주일 장이 섰어요. 그래서 일주일 장을 볼 양으로 두 친구가 갔는데 아,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계시거든요. 한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 '아이, 사기꾼이 말만 잘해 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킨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한 사람은 '야유, 저 사람은 참 이 세상의 왕 같구나. 내가 저 소릴 들으니까 정말이지 저 부처님을 잊을 수가 없구나.' 감동이 돼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사기꾼으로 생각한 사람은 술을 잔뜩 먹고 길에 쓰러졌어요. 주막에 들어가질 못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기다리다 기다리다가 보니까, 새벽이면 옛날에는 우마차가 그냥 배 대 이백 대 이렇게 막 갔거든요. 그냥 거기에 깔려서 죽었어요. 그랬는데 글썽, 동네에서 그 둘이 장사를 하러 나왔다가 어떻게 혼자만 들어갔습니까? 그 친구는 흠여머니가 계신데. 그래서 들어가질 못하고 그 웃감을 산 보따리를 짊어진 채 강을 건너서 탄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지마자 보니까 그냥 양면으로 좌악 사람들이 서 가지고 인군을 뽑는 날 이더라.

그런데 인군을 사람이 뽑는 게 아니고 인군을 태워 가지고 다니는 말 있죠? 말이 인군을 뽑는 겁니다. 그냥 금으로 금데우리를 하고, 그럭하고 선 말이 척 나오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앞에 가도 탁 뿌리치고 뿌리치고 뿌리치고 이력하고선 나오더니, 보따리 맨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앞에 이렇게 놓더니만 궁둥이를 탁 던 거예요, 타라고 이 다리를 꾸부리고 앉아서. 그러니까 그 보따리 맨 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타러도 안되고 그러더니 그 사람을 타라고 딱 올려놓으니까 그냥 착 일어나서 그냥 들어가거든요. 궁으로. 그래서 인군이 됐어요.

그 모든 게 생각하기에 달렸지 않습니까? 생각을 그렇게 나쁘게 한다면 자기는 망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도 생각을 더불어 같이 이익하게 생각을 하세요. 꿈을 꾸고도 이익하게 생각하시고요. 생시에도 이익한 생각을 하시고, 지식들한테도 함부로 욕하지 마시고 남편한테도 함부로 "망해라, 뭐 네가..." 싸움하고는 뭐 별소릴 다 합디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는 게 그렇게 그냥, 그냥 그냥 재깍재깍 떨어진다의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늙으나 젊으나 이 몸 있을 때 이 마음도리를 알아야 진화력이 생겨서 바로 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끄달리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되고, 업을 지니지 않는 도리를 알게 됩니다



을 때는 너고 나입니다. 그래서 한 찰나에 이렇게 만나서 이럴 때는 원력이 있는 스님이라면 스님한테 충전을 해 갑니다. 충전 이요? 전기에 꽂아 놓으면 충전되듯이. 충전이 돼서 한 일주일 가면 또 충전이 빠져요. 그럼 또 충전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가발전소가 그대로 있으면서 가설이 된 데에 용도대로 자기가 스위치 눌러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의 능력을 기르시라 이 소립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고, 그것이 바로 자유인의 법칙이며, 그것이 부처며 그것이 보살의 행위며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부처는 가만히 있으면 부처고 생각 됐다 하면 법이고 법신이고 아, 움직여라 하면 화신인데 어찌서 화신 따로 있고 법신 따로 있고 부처 따로 있고 중생이란 이름 따로 있고... 아, 그렇게 이름이 많아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조화를 이루려나, 회전을 하려나 이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이예요. 여러분도 이

고 절대 양보를 안 합니다. 오히려 나를 교회로 가지고 하지도. 한편으론 좀 불쌍하기도 하고 안 쓰럽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중간에서 아주 난처해합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이끌 수 있을까요?

답) 이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고 또 이렇게 말해 줘요. 머느리 될 사람이 신랑한테로 시집을 왔는데 기독교인이고 또 불교인이고 이렇게 되는 수가 있거든요. 나는 신도들이 기독교 집으러다가 시집을 간다고 걱정을 하면 이렇게 말하죠. "걱정할 게 뭐 있나. 그 강당에 가서도 주인공이요, 뭐 법당에 와서도 주인공인데 시어머니 괴롭히지 말고 법당에 오지 말고 그 강당에 가더라도 그냥 주인공, 주님은 네 가슴에 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절대 찾지 말고 안으로 해야 그 모든 시집살이든 모든 가정의 불행 없이 살 수 있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좀 틀렸나요? 그러니까 머느리더라도

그러니 말 한마디 잘못에 50%의 정신계가 그냥 무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계끔 돼 있으니 항상 자기는 그 따라지밖에 될 수가 없죠. 자기네들은 절대 주인이 될 수 없고 따라지밖에 될 수가 없죠. 그것이 몸뚱이예요. 몸뚱이를 말하는 거예요. 몸뚱이는 그저 말을 아무리 잘하고 이론적으로 잘한다 하고 학식이 많다 하더라도 몸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말도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세요. 불쌍하게 생각지도 마시고요. 그냥 탁 주인공에게 맡기고 탁 버려 버리세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서로가 구원하는 길이요, 구제하는 길입니다. 그 알팍한 사랑이 아니고 자비란 말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라 하는데...

문)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라 하는데 저는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텔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슬라브,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환 개선률 불타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지초, 홍난석화, 초유피, 종로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루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었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를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카페 '아토피체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여래원원장해파합장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주)현대에너지 2011년 최신행

농협농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 1일 ~ 20일까지

건조기(111개) 22개 33개

본사공정직접. 0502-228-1510 HP.011-673-2623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해지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에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 0502-337-0108 / 0502-338-0108 www.seonwonsa.kr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